

'나' 라는 의식을 없애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하늘나라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없으며 숨기고 가릴 수도 없습니다.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고로 남자와 여자가 없고 차별도 없어 동등한 일체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마귀에게 사로 잡혀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하늘나라의 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을 알고 그 법을 지키면 하늘나라 국민의 자격이 갖추어 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미국에서 살려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하듯이 하늘나라에서 살려면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늘나라의 법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자,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모르는 자는 하늘나라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지만 그 누구도 하늘나라의 소재를 알지 못했으며 유사 이래 그 누구도 하늘나라의 법과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해 주는 자 곧, 구세주께서 어떻게 출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귀가 무엇이며 마귀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성경에 '마귀는 곧 죄'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 말이 영적 말이면 죄 자체가 영적인 말인 고로 죄 자체가 영이요 죄 자체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이 악한 영이요 악한 신이므로 마귀 자체가 악한 영이며 오늘날 인간을 지배하는 악한 주체 영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 속에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까만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됨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신을 사로잡아 마귀 육에 가두어 놓고 마귀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고로, 마귀의 육에 갇혀서 하나님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곧 종교입니다

'나' 라고 하는 주체 의식인 마귀의 관습적인 마음의 상태가 마귀의 성(城)이요 영옥(靈獄)입니다. 그곳은 바로 마귀의 집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마음 속에 견고한 성을 쌓고 그 속에서 인간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집, 마귀의 영옥을 부셔야 하나님이 석방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이며 곧 종교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여하에 따라서 천당이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지고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죽이는 비결은 '나' 를 의식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성을 부수었다' 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람들은 천당에 가는 것을 거리가 먼 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으로 말을 했으나 결단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떨어진 곳이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라고 하는 것만 제거하면 '마귀의 영옥, 마귀의 성을 무너뜨렸다' 가 됩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나' 라고 하는 것 전체가 마귀의 성이요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영옥이요 마귀의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의식만 제거하면 '마귀의 집을 부수었다', '마귀의 영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가 되는 고로 결국 '마귀의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이 점령했다' 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열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를 이루는 마음인고로 희생의

마음이요 너와 내가 없고 누구든지 내 몸, 내 지체로써 한 몸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형제 몸을 하나님 몸처럼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형제를 남의 몸으로 여길 때는 벌써 이것은 마귀의 사상이요 마귀의 법이므로 이것은 결코 하늘나라의 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의 역사는 마귀의 집을 부수고 하늘나라를 이루는 역사입니다

형제 몸을 내 몸처럼 여기지 못하고 형제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하늘나라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므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야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으며 하늘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하늘나라 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예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마음이 하늘나라였으나 마귀에게 점령당한 다음에는 마귀나라가 되어버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동등과 일치를 이루는 법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은 나와 남이 따로 없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으나 마귀나라의 법은 하나가 여만 가지로 쪼개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마귀세상은 나와 내가 있고 너와 내가 남이며 여자와 남자가 다르기 때문에 숨기고 가리며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없으며 숨기고 가릴 것이 없습니다.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고로 남자와 여자가 없고 차별도 없어 동등한 일체를 이루고 사는 고로 마음도 몸도 피도 하나입니다.

저 사람도 내 몸이고 이 사람도 내 몸인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눈이 흘릴까요? 손가락이 실수했다고 자기 손가락을 보고 눈을 흘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중 하늘에서 떨어져서 온 영이 아니며 부모님의 피로 만들어졌습시다. 부모님은 조부모님의 피로 만들어졌

고 다시 고조부님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죽 올라가면 우리는 아담과 해와의 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고로 모든 인간은 미국인 다르고 일본인 다르고 한국인 다른 것이 아니요 전체가 한 피요 한 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서로가 몸이 떨어져 있고나 마귀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하늘나라 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치적으로 보아도 이렇게 한 몸인데 서로를 남의 몸으로 여기며 상대의 것을 빼앗으며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니 불안과 불만, 불평이 쏟아져 나오며 고통이 끊어질 날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온 세계가 하나로 완성 되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전체의 사람들이 마귀의 사상이 빠져나가고 마귀의 영이 죽어 없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된다면 너가 나이므로 너가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다' 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몸처럼 여기는 고로 생각이 같으며 그런고로 한 사람이 웃으면 전체가 웃게 되는데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역사입니까 잘못된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오늘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UN 기구를 두고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회의를 해도 합하여지지 않았으나 이 진리의 말씀의 폭탄이 터져나 가면 온 세계가 하나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온 세계가 하나로 완성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1985년 2월 20일 말씀 중에서

조희성님의 발자취



11년의 군 생활 마감과 신앙촌 입주

11년의 군 생활은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신을 연단한 시절이었으며 신앙촌에 입주함과 동시에 자존심을 짓밟는 연단이 시작되었다

1963년 7월 31일, 이 사람은 장교 생활 11년 만에 육군중위로 제대하였다. 제대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였다. 군에서는 지휘관이 예하 장병들의 근무 평점표에 점수를 매기고 의견을 적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육군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여러 가지 사유로 몇 번 제대 원서를 적어 내어도 제대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런 사실도 모르고 전역신청을 아무리 올려도 반려만 거듭되어 골머리를 앓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육군본부 인사 참모부에 근무하는 동기생에게 물어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동기생의 협조를 얻어 편법을 쓰고서 제대하였던 것이다.

그 내막은 이렇다. 전에 이 사람이 영모님에게 꿈 안찰을 받기 전에는 밤낮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몸이 쇠약해져 폐결핵 증증 단계에 있었다. 그런 가운데 꿈 안찰을 받고 나서 그것이 깨끗하게 나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엑스레이(X-RAY)를 찍어보면 그 부분이 희끗하게 찍혀 나오므로 그것을 근거로 군의관에게 보여주면서 부락을 하여 마침내 의사사제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11년 간의 긴 군생활은 한창 유혹이 많은 젊은 시절을 자신보다는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희생과 봉사의 생활로 접철시킬 수 있었으며 세상적인 자유분방한 삶(최악된 생활)과는 거리가 먼 엄격한 규칙과 통제 아래 자신의 육구와 의지를 꺾어 다스려 '나' 를 이기는 소중한 연단의 기간이 되었다.

점점 더해지는 시련과 역경

이 사람은 제대 후 부양가족 열두 식구들을 모두 소사 신앙촌에 입주시켰다. 기성교회에 다니던 동생들도 어렵게 설득해서 반 강제로 이끌어 들였다. 그런데 제대할 때 받은 퇴직금을 어떻게 하다가 사기꾼에게 몽땅 사기를 당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을 가족 식구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가진 돈이 떨어져 하루 이틀이나 가족들이 굶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이 사람은 신앙의 지역사회인 신앙촌에서 한창 마귀라고 내몰릴 때인데, 장사라도 해 보려고 신앙촌 내에 있는 공장을 이곳저곳을 찾아가 물건을 대주면 장사를 해 보겠다고 간청을 했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조 중위 마귀가 왔



오만제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였다

다고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떠미는 등 상대조차 하지 않고 쫓아냈다. 다른 공장으로 갔으나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 같은 마귀에게 물건을 대주었다가는 마귀로 찍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당신이 있으면 재수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어디에도 사정할 만한 곳이 없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려고 오만제단에 올라가면 안내원들이 "마귀가 왔다."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주먹으로 귀통이를 쥐어박거나 매를 때려 푸른 멍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막힌 사정 이야기를 가족들에게도 할 수 없었다. 신앙이 없는 동생들이 눈치를 채고 후 신앙촌 밖

으로 나가버릴까 봐 매를 맞아도 매 맞은 표시를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매를 맞은 날이면 매 맞은 자리를 손으로 비벼서 푸른 자국을 없애야 집에 들어가곤 했다. 그러다보니 해가 진 후에야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은 가족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웃으면서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다.

영모님을 뵈으면 구슬같은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예배를 보러 오만제단에 올라가면 날마다 안내원이 문에 지키고 서서 이 사람을 마귀라고 예배를 못 보게 하는 고로 영모님 설교 말씀을 멀리 숲에서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소리만 들어야 했다. 그토록 보고 싶은 영모님 얼굴을 뵈는 것조차 힘들었다. 오직 예배 인도하시러 차에 타고 오만제단에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인간의 본성이 되는 하늘의 사랑을 볼 때마다, 그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사랑의 향수가 말할 수 없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러면서 어쩌다 스쳐 지나가는 정도라도 뵈을 수 있을 때는 너무나 감개 무량하고, 반갑고 고마운 고로 코가 땅

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곤 했다.

또 영모님이 단상에서 예배를 마치고 승용차로 내려가실 때,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재빠르게 달음질쳐서는 돌아가지는 길목 도로변에서 서서 영모님께 인사를 드리곤 했었다. 그때마다 구슬 같은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그러다 어떤 때는 영모님께서 차를 잠깐 멈추신 뒤 차창 유리를 내리시고 이 사람에게 "요즘은 어떻게 지내?" 하시며 다정하게 물어보시곤 했다. 서로 얼굴을 마주대할 라치면 영모님께서 이 사람의 눈물을 보시면서 당신께서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가시곤 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영적인 가치가 몸 시도 가혹한 지경에 이른 찢어지는 심정을 말없이 눈물만 글썽일 뿐이었다.

소사신앙촌에서 마귀 소리를 듣고 갖은 핏박과 천대 멸시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이기고 나가니, 어떤 안내원들은 예배 시간만큼은 제단 맨 끝 구석 자리에 앉아 예배 보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 때면 너무 감사하고 황송하여 온통 눈물로 예배를 보았다. 그렇지 않은 안내원들일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안내원을 피하여 제단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들리면 매를 맞으면서 질질 끌려 나왔다.*